

토끼의 재판

방정환

때: 옛날 옛적, 호랑이 담배 피우던 때

곳: 산 속

나오는 사람들: 호랑이, 사냥꾼 1,2, 토끼, 나그네, 소나무, 길

막이 열리면 산 속 외딴길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. 커다란 호랑이를 넣은 궤짝이 놓여 있고, 나무 밑에서 사냥꾼 1은 땀을 씻고 있다. 사냥꾼 2는 구석으로 돌아서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. 바람부는 소리와 나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린다.

사냥꾼 1: 여보게, 자네는 거기서 아까부터 무얼 하나?

사냥꾼 2: (돌아선 채로) 목이 너무 말라서 샘을 찾고 있네. 견딜 수가 있어야지.

사냥꾼 1: 그것 잘 되었네. 나도 목이 마른데 같이 찾아볼까?

사냥꾼 2: 그러면 우리 저 아래로 내려가서 찾아보세.

사냥꾼 1: 그럴까? 그런데 우리 둘 다 내려가면 어떡하나? 한 명은 호랑이를 지키고 있어야지.

사냥꾼 2: 설마 궤짝 속에 있는 호랑이가 달아나기야 하겠나?

사냥꾼 1: 하지만, 누가 와서 궤짝 문을 열면 어떡하나?

사냥꾼 2: 별 소리 다 하네. 누가 죽고 싶어서 이 문을 열어 주겠나? 한입에 잡아먹히려고----.

사냥꾼 1: 그런데 도둑이 가져가면 어떡하나?

사냥꾼 2: 아파, 걱정도 많네. 이 외딴길에 무슨 도둑이 있겠나?

사냥꾼 1: 그런가? 그러면 얼른 갔다 오세.

두 사람은 아래로 내려간다. 바람 부는 소리와 나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린다.

호랑이: 아! 뛰쳐나가고 싶어 못 견디겠다. 아이고, 배고파. (머리로 문짝을 떠밀어 보고) 안 되는걸!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우선 저 사냥꾼을 잡아먹고, 사슴이나 토끼를 닥치는대로 잡아먹어야지. (머리로 또 문을 밀어 보고) 아무리 해도 안 되는걸. (그냥 쭈그리고 앉는다.)

나그네가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다가온다.

호랑이: (반가운 목소리로) 나그네님!

나그네: 누가 나를 부르나? (사방을 둘러본다.)

호랑이: 나그네님,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.

나그네: (퀘 짝을 들여다보고) 이크, 호랑이구려! 무슨 일이요?

호랑이: 나그네님, 제발 문고리를 따고 이 문짝을 좀 열어 주십시오.

나그네: 뭐요? 문을 열어 달라고? 열어 주면 뛰쳐나와서 나를 잡아먹을 것이 아니요?

호랑이: 아닙니다. 제가 은혜를 모르고 그런 짓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?

(앞발을 비비면서 자꾸 절을 한다.)

나그네: 허허, 알았소. 설마 거짓말이야 하겠소? 내가 이 퀘 짝문을 열어 주리다. 대신 약속을 꼭 지키시오.

호랑이: 네, 얼른 열어 주십시오. 배가 고파서 눈이 빠질 지경입니다.

나그네가 문을 열자 호랑이가 뛰쳐나와서 잡아먹으려고 덤빈다.

나그네: 이게 무슨 짓이요? 약속을 지키지 않고 ----.

호랑이: 하하하, 퀘 짝 속에서 한 약속을 퀘 짝 밖에 나와서도 지키라는 법이 어디 있어?

나그네: 조금 전에 은혜를 모를 리가 있겠느냐고 하면서 애걸복걸하지 않았소?

호랑이: 은혜 모르기는 사람이 더 하지. 그러니까 사람은 보는대로 잡아먹어도 괜찮아.

나그네: 아니, 그런 법이 어디 있소? 우리, 누가 옳은지 한 번 물어 보세.

호랑이: 그럼 재판을 하자는 말인가? 좋아, 해 보세.

나그네가 두리번거리다가 소나무한테 묻는다.

나그네: 소나무님, 소나무님, 당신도 보셨으니까 사정을 아시지요? 호랑이가 옳습니까? 제가 옳습니까?

소나무: 물론 호랑이가 옳지. 사람은 은혜를 몰라. 내가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해 주는데도 마구 꺾지를 앓나, 베어 버리지를 앓나----. 호랑이야, 얼른 잡아먹어 버려라.

호랑이: 자, 어때? 내가 옳지?

나그네: (머리를 긁으며) 길한테 한 번 더 물어 보세. 길님, 길님! 다 보고 들으셨지요?

호랑이가 옳습니까, 제가 옳습니까?

길: 물론 호랑이가 옳지. 사람들은 날마다 나를 밟고 다니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 마디를 하지 않지. 코나 흥흥 풀어 팽개치고, 침이나 탁탁 뺨잖아? 호랑이야, 얼른 잡아 먹어 버려라.

호랑이가 입을 짹 벌리고 나그네를 잡아먹으려 한다.

나그네: (기운 없는 목소리로) 잠깐, 한 번 더 물어 봐야지. 재판도 세 번은 해야 하지 않소?

호랑이: (자신만만하게) 그래?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이다.

나그네: 이번에는 누구에게 물어 보아야 하나? 마지막인데----.
(풀이 죽은 모습으로 고개를 숙인다.)

아얀 토끼가 지나간다.

나그네: 토끼님, 토끼님! 재판 좀 해 주세요. 이 썩어 속여 간 호랑이를 살려 준 나하고, 살려준 나를 잡아먹으려는 호랑이하고 누가 옳습니까?

토끼: (귀를 기울이고 한참 생각하다) 누가 누구를 살려 주었어요? 누가 누구를 잡아 먹으려 해요? 아, 당신이 이 호랑이를 잡아 먹으려고 해요?

나그네: 아니지요. 내가 호랑이를 잡아먹으려 하는 게 아니라, 이 호랑이가 썩어 속여 간혀 있었는데 내가 살려 주었어요.

토끼: 네, 알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 호랑이하고 당신이 이 썩어 속여 간혀 있었다고요?

나그네: 아니지요. 호랑이가 간혀 있었고 내가 지나가다가 ----.

토끼: 그러니까 호랑이가 지나가다 보니까 ----.

호랑이: (답답한 듯이 화를 내며) 아이고, 답답해.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지? 이 썩어 속여 간혀 속에는 내가 있었어, 내가!

토끼: 그랬습니까? 호랑이 속에 썩어 속여 간혀 있었다고요?

호랑이: 무얼 어째? 썩어 속여 간혀 속에는 내가 간혀 있었다니까!

토끼: 하하, 썩어 속여 간혀 속에는 내가 간혀? 아니지요. 호랑이가 이 양반 속에 간혀 있었는데 썩어 속여 간혀 지나가다 보니까 ----. 아이고 모르겠네. 왜 이렇게 알 수가 없을까? 죄송하지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. 눈으로 보면 쉽게 알 수 있겠는데 ----.

호랑이: (화를 벌컥내며)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해 줄테니 잘 들어라. 나는 호랑이야, 호랑이. 알겠느냐?

토끼: 네, 호랑이님.

호랑이: 저기 서 있는 것이 사람이야. 알겠니?

토끼: 네, 호랑이님.

호랑이: 그리고 이것이 궤짝이야, 궤짝.

토끼: 네, 궤짝입니다. 호랑이님.

호랑이: 이 궤짝 속에 내가 갇혀 있었어. 알겠지?

토끼: 네 ----. 아뇨, 또 모르겠어요. 이렇게 큰 몸이 어떻게 이 궤짝 속에 들어가나요?
믿을 수가 없어요.

호랑이: 아이고, 답답해. 그래도 몰라? 천치, 못난이, 바보 같으니. 잘 봐라. (궤짝 문을
열고 몸을 굽혀 들어간다.) 자, 이렇게 들어가지 않니? 이렇게 갇혀 있었던
말이야. 알았지, 알았어?

토끼가 일른 달려들어 문고리를 걸어 잠근다.

토끼: (웃으면서) 이제야 알았습니다.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겠습니다. 호랑이님이
어떻게 이 궤짝 속에 들어갔는지 잘 알았습니다. 그럼 저는 바빠서 이만 가
보겠습니다.

호랑이: (놀라서 말을 못한다.)----.

나그네: (토끼를 쫓아가며) 토끼님, 대단히 고맙습니다.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---.

호랑이: (궤짝 문을 차고 흔들면서) 나그네님, 이번에는 정말 잡아먹지 않을테니 한 번만
더 살려 주십시오. 토끼님, 토끼님! 은혜를 잊지 않을 테니 제발 살려 주십시오.

호랑이는 다시 궤짝 속에 쭈그려 앉아 있고, 사냥꾼들이 돌아온다.

사냥꾼 1: 그 물, 참 시원하기도 하다.

사냥꾼 2: 여보게, 우리 빨리 고개를 넘어가세.

사냥꾼 1: 그럴까? 아니, 여기 호랑이 발자국이 있네!

사냥꾼 2: 응? (궤짝을 보고) 아따, 별소리를 다 하네. 여기 이렇게 암전하게 들어
있는데?

사냥꾼 1: 그렇지만 이 발자국은 분명히 호랑이 발자국이 아닌가?

사냥꾼 2: 글썸, 이상하네.

사냥꾼 1: 그럼 아마 이 근처에도 호랑이가 있나 보군. 우리 잡아 볼까?

사냥꾼 2: 여보게, 그럴 시간이 없네. 어둡기 전에 빨리 고개를 넘어가세.

사냥꾼 1: 그러세.

즐거운 음악이 흐르며 막이 내린다.

읽기 3-1 149 쪽

◆ 인물의 성격을 생각하며 글을 실감나게 읽어 봅시다.

1. 인물의 성격을 생각하며 ‘토끼의 재판’을 읽어 봅시다.
2. ‘토끼의 재판’에 나오는 인물의 성격을 말하여 봅시다.

나그네:

호랑이:

토끼:

3. 인물의 성격이 잘 드러나도록 ‘토끼의 재판’을 실감나게 다시 읽어 봅시다.